

시각화된 음성적 전통과 언문일치라는 물음

- 『만세보』의 부속 국문 표기를 중심으로

송민호*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06년에 창간된 『만세보』가 채택했던 ‘부속 국문 표기’에 관한 것이다. 당시 천도교의 교주였던 손병희는 신문을 창간하면서 일본의 루비와 유사한 활자를 들여와 한자 옆에 한글로 주석을 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국한문 병용 표기는 조선 이래로 한국의 어문 환경에 존재하고 있던 국문과 한문의 관계에 대한 양상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문을 읽어내는 음성적 전통과 뜻을 새기는 번역적 전통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표기를 통해 한자에 맞는 주석음을 달아주더라도 결국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만세보』에는 주로 서구의 근대적 개념어에 대해서는 주석음을 다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국문독자구락부 같은 란을 통해 행위나 형용을 표현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한자에 한글로 주석음을 다는 방식이 아니라 주석뜻을 대응시키는 언어 표기적 실험을 하였다. 다만, 이러한 언어 표기적 실험은 일본의 훈독체의 영향을 받아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만세보, 부속국문활자, 부속 국문 표기, 국문담론, 언문일치
Manse-bo, attached Korean transcription style, Korean language discourse,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순국문체로 가는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여기에는 조선에서부터 확립되어 있던 음성적 전통과 언해적 전통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만세보』의 표기 상의 문제는 이전 시대 『독립신문』의 주역들이 제기했던 한문과 국문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상기하도록 한다. 당시 서재필과 주시경은 각각 한자어를 음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피력했던 것이다. 이 논의의 핵심은 한자어에 대한 음차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었다. 서재필과 주시경은 공통적으로 음차된 한자어의 개념이 당시 인민의 언어 생활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이를 통해 서구의 근대적 개념에 대한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이다. 『만세보』가 도입한 부속 국문 표기는 바로 이 시대에 제기되었던 국문 담론과 계몽의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나아가 한문혼독의 전통이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에서 결국 순국문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반의 조건을 상기시켰던 것이다.

1. 서론

1906년 6월 17일에 처음 발간된 『만세보(萬歲報)』는 1호부터 통칭 일본에서는 ‘루비(るび)’라고 불리던 부속국문활자를 통한 부속 국문 표기를 도입하였다. 당시 천도교단의 중심이었던 손병희와 오세창 등은 일본으로부터 부속 국문 표기가 가능한 인쇄 활자를 들여와 인쇄소인 보문관(普文館)을 설립하고 이 인쇄소를 통해 신문을 발행하는 만세보사를 설립하여, 일본 유학 뒤에 귀국하여 『국민신보』사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인직을 통해 발간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신문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당시 『만세보』를 발간하던 주체들은 일본으로부터 특별히 제작된 활자와 인쇄기를 도입하여 주로 국한문혼용문에 섞여 있는 한자들에 작은 글자로 국문으로 된 주석음을 달아줄 수 있는 표기방

식을 구축하였고, 이를 이 신문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대외에 선포하였다.¹⁾

당시 부속국문활자를 통해 시도된 『만세보』의 부속 국문 표기는 조선 사회 이래로 오랫동안 언어적 주체들이 언어생활에서 겪어왔던 한문과 국문 사이의 관계와 층위의 문제를 단번에 명료히 시각화하여 드러낸 중요한 증거였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만세보』에 도입된 국한문 병용 표기는 신분 계층에 따라 혹은 텍스트에 따라 각각 분리 고착되어왔던 한문과 국문의 분화 양상과 그 사이를 매개하는 음성과 의미적 국면을 한 신문의 지면 혹은 한 편의 기사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간명하게 대립된 구도로 드러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훈민정음의 창제 이래로 국문과 한문이라는 이원적 어문 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만세보』가 주도한 언어 표기적 실험은 당시 어문 환경의 중첩적 경향을 드러내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전 『독립신문』의 주역들이 시도했던 국문 전용 쓰기와 정치담론화가 초래한 국문과 한문 사이의 어문 권력적 재편 양상²⁾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례였던 것이다.

이처럼 『만세보』의 부속 국문 표기에 담긴 어문 전통과 담론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 이 신문에 연재된 이인직의 소설 「혈의누(血의淚)」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최태원은 『만세보』의 부속 국문 활자를 통한 이중표기가 한자와 한글이라는 표의문자와 표음문자, 나아가 한문과 국문이라는 문체 사이의 대립일 뿐만 아니라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사이의 대립이라는 국면이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을 통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최초로 명료하게 주제화하였다. 그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인직의 「혈의누」의 이중 표기가 보여준 독특한 언어적 실천 양상이 중국의 문자로서

1) 최기영(1998), 「구한말 『만세보』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61·62, 한국사연구회, pp. 301-342.

2) 권영민(2006), 『국문 글쓰기의 재탄생』, 서울대학교 한국학 모노그래프 11, 서울대학교출판부, pp. 11-22.

의 한문자와 그것을 읽어내는 음성, 나아가 이를 고착하려는 시도로서 구축되어 있던 음성문자인 훈민정음 사이의 동국정은 이래로 내려온 관계 속에 일본식의 한자 혼독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투입하게 된 전후의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드러내었던 것이다.³⁾ 특히 이인직의 이중 표기 선택의 문제를 단지 모방과 차용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굴절과 변용을 통해 언문일치의 실험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이인직의 이러한 실험이 한문의 보편성이 상대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이를 국민국가의 국어 형성의 문제와 관련짓고 있는 것은⁴⁾ 이후 이인직의 신소설에 드러난 언어적 의식을 해명하는 일련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사에구사 토시카츠(三枝壽勝)는 당시 『만세보』의 부속 국문 표기를 통해 이인직이 실천하고자 했던 새로운 문체 상의 실험이 과연 일본의 루비 활자를 통한 후리가나 표기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문제를 살핀 바 있다.⁵⁾ 이 연구는 일반적인 관점 상 일본의 활자 표기 방식을 모방하여 가져온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부속 국문 표기가 과연 실제로 일본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일본인 학자로부터의 해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에구사는 특히 이인직의 「혈의누」에 쓰인 한자 어휘와 부속 국문 표기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몇 가지 부분에서 일본의 후리가나 표기와 다른 지점들을 발견해내면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바로 한일 양국이 수립해온 언어적 전통의 차이를 들고 있다.⁶⁾ 다

3) 최태원(1999), 「『血의淚』의 문체와 담론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22-38.

4) 최태원(1999), pp. 39-46.

5) 三枝壽勝(2000), 「이중표기와 근대적 문체 형성-이인직 신문 연재 「혈의 누」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15, 한국문학연구학회, pp. 46-60.

6) 三枝壽勝(2000), p. 46.

만, 그는 결국 이인직이 「혈의누」 이후의 소설, 즉 「귀의성」에서는 다시 금 순국문체로 회귀해버린 것을 두고 고대 소설로의 회귀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바로 이인직의 근대적 문체 실험이라는 것이 실패한 배경이 바로 일본과는 다른 조선의 언어적 전통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체 설정의 국면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이상 최태원과 사에구사 토시카츠의 연구는 흥미롭게도 비슷한 시기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이인직의 언어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적 전범을 구축해왔다. 물론 이 두 연구는 광범위한 어문 전통의 충돌과 전이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지나치게 이인직 개인의 언어 의식과 실천 양상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특히 한문을 읽어내는 음성과 의미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쌓아올린 전통의 상이를 지적하면서 같은 한자문명권에 속해 있는 양 국가에서 한자를 매개로 하여 각각 다르게 구축된 어문적 전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를 노정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문과 한문,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체적 변이들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기존의 논의에 그 한문을 읽어내는 음성이라는 새로운 감각적 차원을 끌어들이어 이 문제를 보다 다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는 바가 있다.

이후, 김영민은 부속국문체가 외래표기법에 대한 모방이었다는 종래 한국에 존재했던 부정적인 인식에 의문을 던지면서 『만세보』의 부속국문체가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던 바 있다.⁷⁾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신문에 실린 기사의 성격에 따라 본래 한문으로 쓰인 글과 국문으로 쓰인 글을 나누고 이를 각각 부속국문체의 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7) 김영민(2008), 「『만세보』와 부속국문체 연구」, 『大東文化研究』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426-446.

기사글의 저자와 주석을 다는 작업자와의 분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소설의 경우에는 작가가 아니면 부속국문체를 완성하기 어려웠지만, 논설 및 기타의 기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공존했다는 것이다.⁸⁾ 딱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김영민의 이 연구는 결국 당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의 한국에서 한자를 음으로 읽어내는 경향이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에 해당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논설의 기사는 주로 한자에 대해서 음을 중심으로 다는 경향이 존재했고 이후 이인직의 소설은 국문체로 소설을 완성한 뒤 한문을 억지로 끼워맞춘 정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민의 지적처럼 저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부속국문체 작업 가능성이란 사실상 누구에게나 고착된 한자의 음을 중심으로 주석을 다는 경향과 실제로는 동어반복인 셈이다.

이상과 같이 1906년 무렵 『만세보』가 도입한 새로운 표기 방식을 통해 도래된 국문과 한문의 어문적 전통에 대한 기존의 연구 흐름을 살펴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단지 새로운 인쇄 테크놀로지의 도래로부터 비롯된 미미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문과 한문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온 어문 전통이 담고 있던 문제들이 마치 거울처럼 시각화하여 드러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바로 앞선 시대 『독립신문』이 도입했던 국문 전용 표기와 국문담론의 문제가 다시금 실체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황성신문(皇城新聞)』이라는 한문 중심의 국한문혼용체로 된 신문과 『제국신문』 같은 국문 중심의 신문으로 아예 확연히 구분되어 있던 개화기 당시의 언어적 환경에 『만세보』는 그 표기 체계 양쪽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장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8) 김영민(2008), pp. 439-446.

2. 국한문 언어 표기 방식의 공론장으로서의 『만세보』

우선 당시 『만세보』의 국한문 병용 표기에 담긴 언어적 의식에 대해 논하기 위해, 창간호인 1906년 6월 17일의 지면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이 신문의 지면 속에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표기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황성신문』 같이 주로 한문 표기를 중심으로 하던 신문의 경우에도 국한문 혼용의 방식이나 구결 표기의 방식에 있어서 단순하지 않은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찍이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기술로 도입된 부속국문활자까지 사용되어 국문과 한문의 보충 표기가 가능해진 당시 『만세보』의 지면은 그야말로 이 시기의 언어 생활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양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언어적 표기와 소리의 전시장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었다.

(A) 歲光武十年夏於南山下新築一屋名曰萬歲報社是日也發刊第一號遂廷內外大賓及文人名士落而成之實盛舉也於是漢水玄采叨參末席起而告之曰今夫天下萬國新聞之設以千萬計新聞多則民智日開國勢日張新聞少則民智日愚國勢日蹙⁹⁾

(B) 萬歲報라名稱은新聞은何를爲하야作함이노我韓人民의智識啓發키를爲하야작함이라噫라社會를組織하야國家를형성함이時代의變遷을隨하야人民智識을啓發하야野昧은見聞으로文明에進케하머幼穉은知覺으로老成에達케함은新聞教育의神聖함을과無過하다謂할지라¹⁰⁾

9) 「宮廷錄事」, 『萬歲報』 1호, 1906.6.17, 3면.
 10) 吳世昌, 「社說」, 『萬歲報』 1호, 1906.6.17, 1면.

(C) 文明^{문명} 國^{나라} 에 家^집 家^집 이 大^대 學^학 校^교 를 設^설 始^시 ㅎ 얏 達^달 ㅎ 니 何^{무엇} 이 오 新^신 문 紙^{신문} [北^북 村^촌 一^일 人^인]
 文明^{문명} 國^{나라} 에 人^{사람} 人^{사람} 이 高^고 等^등 教^교 科^과 書^서 를 讀^독 ㅎ 니 何^{무엇} 이 오 新^신 문 紙^{신문} [北^북 村^촌 一^일 人^인]
 文明^{문명} 國^{나라} 에 文^문 明^명 人^인 은 飯^밥 一^일 時^시 를 空^공 고 는 出^출 入^입 ㅎ 되 新^신 文^문 을 未^못 讀^보 면
 門^문 에 出^나 지 아 니 ㅎ 다 ㅎ 니 何^{엇지} 事^일 이 오 耳^이 목 이 昏^깜 昏^깜 (愛^애 讀^독 生^생)
 文^문 明^명 國^{나라} 에 官^관 人^인 이 勤^동 勞^자 者^자 이 勤^각 勞^반 者^{사회} 이 勤^월 勞^은 者^품 이 勤^사 勞^중 者^중
 新^신 文^문 紙^지 價^값 을 先^먼 豫^저 算^산 ㅎ 고 衣^의 食^식 의 經^경 費^비 를 습 는 다 하 ㅅ ㅓ ㅅ ㅓ 다 [聽^듣 世^세 翁^옹]¹¹⁾

이처럼 『만세보』에 드러난 다양한 표기 방식들 중에서도 특히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을 거론해보는다면 이미 선행 연구들이 충분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A) 순한문표기와 (B) 국한문혼용에 한글로 주석음을 단 표기, (C) 국한문혼용에 한글로 주석 뜻을 단 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예 구결(입꺾) 표기도 되지 않은 순한문 표기에서부터¹²⁾ 국한문 혼용에 한자를 읽어낼 수 있는 독음을 단 표기나 국한문 혼용에 한자 부분에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뜻을 붙인 표기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A)와 같이 순한문으로 씌어진 글의 내용적 성격은 주로 대한제국 관공서의 ‘공보’라든가 ‘축사(祝辭)’ 등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이 신문에는 창간 초창기에 각계에서 축사들이 답지하였는데, 이 축사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순한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었다. 이러한 축사는 주로 당시 정계 혹은 학계의 유력한 지식인들이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이 한문으로 씌어 있었던 것은 당연할 터였다. 다만, 이러한 성격의 글에 부

11) 「國文讀者俱樂部」, 『萬歲報』 1호, 1906.6.17, 3면.
 12) 물론 『萬歲報』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순한문체와 국한문혼용체의 중간 단계로 원래의 한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문장에 국문으로 현도를 단 형태의 문체 역시 존재한다. “今於萬歲報社와 普文館之設에 余甚嘉悅而深視也 ㄹ 何者 〇萬歲報는 新聞發行者也 〇普文館은 簡策印刷者也 ㄹ 新聞은 引天下 文明諸國已發之事 ㅎ 야 著於一片紙上 ㅎ 야 以所不聞으로 教導未發之國 ㅎ 야 使之進歩케 ㅎ 니 此是爲國爲民之一脈絡이오” (『祝辭』, 『萬歲報』 1호, 1906.6.17, 3면)

속국문활자를 통한 주석 표기가 달리지 않았던, 혹은 달릴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일반적인 한문 문장의 경우, 이를 읽어내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구절을 덧붙여 읽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해석적 전통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축사로 온 글에 대해서 타인이 선불리 구절 표기를 하는 것은 무례한 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만세보』 내에도 한문 문장을 읽고 쓰는 일에 대해 능숙하고 정통한 이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마치 전통적인 ‘문(文)’의 개념에서 보면 편지와도 같은 ‘축사’라는 글의 형식에 대해 신문사에서 마음대로 독음을 달아 내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되는 바가 있다. 즉 이 신문에서 한문의 원래 구조를 그대로 띠고 있는 기사들을 내용상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존재했던 셈이다.

한편, 이처럼 주석음이 달리지 않는 한문으로 된 기사의 경우에는 국문 주석음의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한문으로 된 텍스트에 독음과 자기 나름의 구절을 붙여 읽어낼 수 있는 이들에게는 한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음을 달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는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읽어낼 수 없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한자 하나 하나의 독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한자가 환기하는 의미나 어문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 텍스트를 해독해낼 수 없는 까닭이다.¹³⁾ 애초에 한문을 읽고 쓰는 이들은 입으로는 낱낱의 한자의 독음에 각기 나름의 구절을 덧붙여 읊으면서, 눈으로는 그 한자의 형상과 문장의 구조를 통해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것이다. 애초에 읽어내는 음성과 관념으로서의 의미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조선 이래의 한문으로 된 텍스트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형상을 통해 의미를 환기할 수 없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내는 소리로서 독음을 제시

13) 최태원(1999), p. 12.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따라서 창간호와 이후의 『만세보』의 지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기가 (A) 같은 순한문 표기가 아니라 바로 (B) 국한문혼용에 한글로 주석음을 단 표기였던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한문을 주로 하되 한문 글자 옆에 국문으로 주석을 하여 한문을 모르는 자라고 하더라도 국문을 보고 알도록 하겠다는, 『만세보』가 처음 창간되던 당시 천도교의 교주인 손병희가 피력했던 언어 계몽적 표기 이념과 두루 상통하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창간호의 사장 오세창이 쓴 「사설(社說)」이나 주필 이인직이 쓴 기사인 「사회(社會)」 같은 주요한 기사들이 주로 국한문 혼용문에 한글로 주석음이 달린 형태였던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문장 상으로 본다면 이른바 국한문 혼용이라고 지칭되는 문장 중에서 이미 한자의 문법 구조를 해체하여 원래 한문의 음을 읽어내는 자연스러운 구결문의 구조를 깨뜨리고 국문의 구조를 차용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부속국문활자를 통해 그 독음을 제시한 형태였다. 따라서 분명 이전 『황성신문』에서 채용하던 국한문혼용의 그것에 비해 인쇄 기술적인 진보가 체감될 만한 것이었고 다양한 어문 사용계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B)와 같은 표기 방식 유형에서도 앞선 순한문 표기와 마찬가지로 표기 선택 상의 딜레마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용된 (B)는 오세창이 쓴 사설이었는데, 이 글의 표기 방식은 한문이 갖고 있던 본래의 어문 구조

14) 「萬歲報施設」, 『제국신문』, 1906.5.11, “던도교주 손병희씨가 던도교 교회 기관신문을 발간한다는 말은 향일 괴지 하얏거니와 그 신문 일홈은 만세보라 하고 최소는 남서회동으로 명하고 괴계와 활주는 임의 준비 하얏고 그 신문 만들기난 한문으로 주장 하고 한문 글자 옆에 우리나라 국문으로 주석 하야 비록 한문을 몰으난 자라도 그것 히 국문을 보고 알게 만들 깃다 하며 신문장광은 외국의 큰 신문과 가치 하고 갑슬 미우 넘 하 계 흔다 난디 리인직 씨의 명의로 일전 너부 에 청원 인 허 하 얏다 하니 불 원간 간 히 이 되 깃다 더 라” (김영민(2008)에서 재인용)

를 해체하여 국문의 그것처럼 하되, 주로 ‘신문’, ‘사회’, ‘지식’, ‘국가’ 등 근대적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한자로 표기하고 이에 독음을 표기하는 것이었다. 다만 앞서 순한문 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자로 표기된 단어의 독음을 부속국문활자를 통해 한글로 적어넣는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한자어를 읽어내는 소리만으로도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환기할 수 있도록 그 단어가 이미 독자의 언어 생활에서 늘상 참조하는 가상의 어휘 사전(glossary)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山(산)’이나 ‘江(강)’처럼 한자의 음이면서도 이미 충분히 국문화되어 당시 일반인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수용된 것들이어야 부속국문활자를 통해 한자 단어의 독음을 단다는 행위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일본을 통해 번역되어온 서구의 근대 개념어들은 한문을 주로 읽고 쓰는 계층에게나 국문을 주로 읽고 쓰는 계층에게나 익숙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Society’의 번역어로서 일본에서 번역한 ‘사회(社會)’라는 번역어는 같은 한자문명권에 속해 있는 한국에 한자어 그대로 쉽게 들여올 수 있었지만 그 실제 내용은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미 조선시대 내내 확립되어 있던 동음(東音)이라는 한국화된 한자어의 읽기 관습을 따라 ‘사회’라고 표기하는 것은 다소 잠정적인 명명법에 해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한문 교육을 받은 자라면 한자의 형상이 환기하는 의미를 통해 대강의 의미를 어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한자를 경유한 독음으로 된 단어라는 낯선 개념적 구체물이 환기하는 현전을 맞이하며 하나, 하나의 의미를 학습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사실 한자에 대한 지식의 유무가 한자로 표현된 외래의 개념어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대단히 심대한 차이를 이끌어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로 추상적인 언어적 개념은 궁극적으로 인간 개개인이 소유한 이념적 지평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유(自由)’라는 한자어의 낱낱의 한자가 갖는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적인 의미의 ‘자유(freedom)’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이처럼 낯선 근대적 개념에 대한 독음 중심의 표기는 당시 인민의 언어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개념에 대한 인민의 얇은 욕망을 추동하는 계몽의 문제로 변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의 개념에 대한 음성적 재현의 측면 외에 (B)의 표기 방식에서 발견되는 표기 상의 또 다른 딜레마는 바로 움직임을 표기하는 어휘의 표기 방식이다. 주로 ‘독립하다’처럼 개념어에 ‘하다’가 붙은 형태의 표기라면,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였겠지만, (B)의 글 속에서는 예를 들어, ‘^작흙’이라든가 ‘^수隨^하야’, ‘^달達^케흙’처럼 표기하고자 하는 독특한 경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장은 이미 국문의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 위에 붙어 있는 독음과 어미를 붙여 읽으면 자연스럽고 읽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한자의 독음만 그대로 표기하는 경향은 국문을 주로 읽고 쓰는 독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닿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자가 포함된 단어 전체를 국문으로 바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나 한자를 없애고 이를 국문으로 바꾸는 것은 한문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독자의 요구에 배반하여 국한문 병용 표기 본래의 취지를 깨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표기된 한자 옆에 그 독음이 아닌 국문으로 번역된 의미를 표기하기 시작하는 (C)와 같은 표기 경향이 고안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이해된다. 이 문제는 번역된 서구의 근대 개념어의 차원과는 달리 계몽의 구도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국한문의 글쓰기적 문제로, 순국문체와 국한문혼용체 사이에 존재하던 오래된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자를 음성적으로 읽어내는 방식으로 주석음을 붙이는 표기 방식이 드러내고 있는 여러 문제적 국면에 있어 표기된 한자에 대해 국문으로 된 단어, 즉 의미로 된 주석뜻을 다는 방식으로 표기적 변용을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주로 초기 『만세보』에 설치된 ‘국문독자구락부(國文讀者俱樂部)’란에 실려 있는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이인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된다. 이인직의 경우에는 그가 창간호에 쓴 「사회」를 보면 전형적인 (B) 유형의 표기 방식을 드러내고 있으나¹⁵⁾ 그가 소설 창작에 나서는 시점부터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표기 방식의 실험으로 나서게 된다. 다만, 당시 『만세보』에서 행해진 이러한 새로운 표기 방식의 실험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앞서 조선 이래의 언해적 전통과 독립협회의 국문 담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조선의 언해적 전통과 ‘한문훈독’이라는 관념적 허상

사실, 『만세보』가 부속 국문 활자를 통해 실현했던 부속 국문 표기는 단지 인쇄 테크놀로지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새로운 방식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부속 국문 표기는 비록 목판활자의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의 창제와 더불어 발전해온 언해(諺解)의 일부인 한문 주석의 전통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月印釋譜)』의 권두에 실린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는 이미 한자의 대각선 아래에 작은 글씨로 그 한자에 대한 동국정운(東國正音)식 독음이나 이후 동음화된 독음(東音)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이 선행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독특한 표기적 실천 양상이 당대 어문 환경에 초래했던

15) 李人植 「社會」, 『萬歲報』 1호, 1906.6.17, 2면, “社會는數世에一社會가成함도有^{사 회 수 세 일 스 회 성 유 호}호 며瞬息에一社會가成함도有^{순 식 일 사 회 성 유 호}호 니昔에木食潤飲^{석 목 식 간 음}호 든野灣에幾年代를一社會라稱함^{야 만 기 년 대 일 사 회 칭 함}도可^가호 며今에狹道列車內에集合^{금 철 도 렬 기 내 집 합}호 若干人을一種會社의團結을形成^{일 종 회 사 단 결 형 성}호 었다함도可^가호 지라(후략)”

담론적 효과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단지 비슷한 발상이 훨씬 이전 시기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터이다. 다시 말한다면, 같은 한자 문명을 공유하고 있던 양국가는 각각 다른 시기 한자어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여 부속 표기 혹은 병용 표기의 발상을 통해 각각 다른 어문전통을 구축해 내었던 것이다. 우선 일본에 있어서는 ‘루비’라는 활자를 통해 한자 옆에 그것을 읽는 독음을 적어 넣는다는 간단한 생각은 앞선 시대 한문혼독이라는 전통이 초래한 한자 읽기 관습 상의 혼란을 단번에 정리하는 효과를 얻었다.¹⁶⁾ 코모리 요우이치가 활자로서 ‘루비’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앞선 시대 한자에 대한 음독과 혼독¹⁷⁾의 다양한 양태들이 뒤섞여¹⁸⁾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의 ‘한자폐지안(漢字御廢止之議)’ 이후 일련의 한자 폐지의 주장¹⁹⁾을 통해 복잡해진 일본 어문의 혼란상을 바로 이 인쇄 표

16) 小森陽一(2003), 정선태 옮김, 『일본어의 근대-근대국민국가와 ‘국어’의 발견』, 소명출판, p. 65, “1874년 11월 2일에는 모든 한자에 방훈(傍訓) 즉 루비(るび=ふりがな)를 단 소신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이 창간되어 단숨에 대신문과 소신문을 합쳐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게 된다. 근대일본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형성하는 데 한자에 루비를 다는 활자인쇄기술만큼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루비라는 일견 걸다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문자들이 근대 일본어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 齋藤希史(2010), 황호덕, 임상석, 류충희 옮김,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 한문맥과 근대 일본』, 현실문화연구, pp. 88-95.

18) 小森陽一(2003), pp. 9-29, 코모리 요이치는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와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를 비교하면서, 소라이가 한문을 읽을 때 중국어 발음대로 읽어야 하며 종래 계승된 혼독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한 입장과 달리, 노리나가는 한문을 통해 고유일본어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표출함으로써 대립되는 관점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코모리 요이치는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로부터 소리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하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공통적이었으며 이것이 일종의 일본 전래적인 전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19) 이연숙(2008), 고영진, 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의식』, 소명출판, 2쇄, pp. 54-59.

기 상의 테크놀로지와 출판미디어를 통해 타개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당시 한자를 통해 발생한 언문일치의 요구를 언어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해 당시의 인민에게 새로운 어문 체계나 관습을 강요하지 않고서도 복수적인 표기 체계의 구축과 미디어적인 파급력을 통해 무마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루비라는 표기를 통해서였던 것이다. 한자 표기를 포기하지 않고 한자를 일본어의 일부로 끌어들여 절충적인 표기 형식을 이룬 현재 일본어의 근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에 있어서 언해의 과정에 앞서 존재했던 부속 국문 표기는 이외는 달리 한자를 읽어내는 음을 고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국정운』 이래로 조선의 어문정책의 핵심이 이른바 화음(華音)과 동음(東音) 사이의 격차, 즉 중국과 조선에서 각각 한자를 읽어내는 음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 가장 정확한 음성적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발간된 언해류가 먼저 한문의 원텍스트와 함께 이를 읽어내는 독음 주석과 구결을 부속 국문 표기로 먼저 제시하고, 이후 의미를 새길 수 있는 번역으로서 국문으로 된 언해를 제시하는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한문을 읽어낼 가장 정확한 음성적 표준을 마련하고 한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번역을 통해 풀어낸다고 하는 음성과 의미의 이원적 체계가 진작부터 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앞서 한국의 언해적 전통 상에 있어서 초창기에 등장했던 한자-한글 병용을 통한 독음 주석의 관습은 초기 한글의 보급의 국면에 있어서 한자를 읽어내는 음성을 시각화하여 확정하기 위한 용도로만 주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 내내 다양한 어문 관련 출판물들인 ‘운서(韻書)’류나 ‘유해(類解)’류 등을 통해 한자어의 동음이라는 읽기 관습과 전통이 정연하게 확립된 이후, 이러한 대역의 전통은 몇몇 한문 교육적인 목적 외에는 굳이 유지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한문 전통에 있어서 구결을 중심으로 한 한문음독의

전통이 거의 절대적으로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훈독이란 실제로 한문을 읽어내는 관습이 아니라 뜻을 새기는 번역, 즉 언해적 관습으로 간주되었다.²⁰⁾ 이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한문훈독체가 한문을 읽는 음성적 관습²¹⁾ 속으로 통합되어 들어가 있었던 상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조선에 있어서 한문훈독, 즉 언해의 전통은 뜻을 새기는 별도의 과정으로 존재했던 것이지, 결코 읽는 방법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즉 한국이나 일본에서 언문일치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문의 표기와 그것을 읽어내는 음성 사이의 일치였다고 하더라도,²²⁾ 양국

20) 안병희(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 41, 진단학회, pp. 153-156, “음독이란 구절을 넣어서 읽는 것을 가리키고, 석이란 훈독을 가리킨다. 이 음독과 훈독은 한문학습의 필수요건으로 보인다. 음독을 하여 한자의 독음과 문맥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훈독을 하여서는 문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안병희는 柳希春의 일기를 통해 400년 전의 한문학습을 확인하면서 조선시대에 있어서 한문을 번역하여 읽는 방식, 즉 훈독이란 석(釋)에 해당하며 즉 언해임을 밝히고 있다.

21) 이연숙(2005), 「일본에서의 언문일치」, 『역사비평』 70, 역사문제연구소, p. 324, “일본의 글말 세계는 같은 한자사용권에 속하는 한국과는 상황이 꽤 달랐다. 우선 일본의 글말에는 여러 양식이 있었음을 기억해두자. 일본의 한문은 한자를 읽는 순서를 나타내는 기호와 한문에는 없는 어휘 활용을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한문을 일본어식 선택스(syntax)로 변환시켰다. 언뜻 보기에는 한문이지만, 읽는 방법은 일본어인 ‘한문훈독체(漢文訓讀體)’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이두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이두는 어디까지나 주변적 현상이었음에 비해 ‘한문훈독체’는 일본 한문의 ‘정통’이었다.”

22) 柄谷行人(1997),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pp. 64-71, “‘언문일치’ 운동은 무엇보다도 ‘문자’에 대한 새로운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막부의 통역마에지마 히소카를 사로잡은 것은 음성 문자가 갖는 경제성, 직접성, 민주성이었다. 그는 서구의 우월성은 음성 문자에 있다고 생각했고, 음성 문자를 일본어에서 실현시키는 일이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략) ‘한자 폐지’ 제언에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자는 음성을 위해 씌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일은 필연적으로 구어에 대한 강조로 연결된다. 일단 그렇게 되면 한자가 실제로 ‘폐지’되는 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한자도 음성을 위해 씌어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니 한자를 택할 것인지 가나를 택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앞에서 나는 언문일치의 본질은 문자 개혁, 즉 ‘한자 폐지’

의 상황은 사실 전혀 달랐던 셈이다. 마찬가지로 한자폐지의 주장이나 언문일치의 요구가 일본과 한국에서 단지 시기만을 달리하여 제기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국가의 어문 환경의 근본적인 배치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제기된 배경은 실제로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다면 사실 조선에서 한문을 보고 뜻을 중심으로 읽어낸다고 하는 일본적인 개념의 ‘훈독’이 존재했을 것인가,²³⁾ 오히려 조선 후기 일본과의 접촉 과정에서 일본의 훈독적 전통이라는 관념이 한국에 유입되어²⁴⁾ 재구축된 양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럽다. 즉 일찌기 안병희가 조선시대 한글에 있어서 한문 훈독이란 실제로 언해, 즉 번역이었다고 단언했던 것은²⁵⁾ 대단히 이중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즉 조선 이래의 한국의 어문 관습에서 본다면, 한문에 대한 음독과 언해(번역) 과정을 분리하여 이중적인 체계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까닭에, 굳이 한문훈독이라는 다소 거추장스러운 절충적 형태의 새로운 음성적 관습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조선의

에 있었다고 썼다. 물론 실제로 한자를 폐지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언문일치를 통해 ‘문’(한자)의 우위가 근본적으로 뒤집혀졌다는 것이며, 또한 언문일치가 음성 문자의 사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3) 金文京(2010), 『漢文と東アジア訓讀の文化圏』, 東京: 岩波新書, pp. 94-149, 김문경은 이 책의 2장 ‘東アジアの訓讀-その歴史と方法’이라는 장에서 조선에서의 한문의 훈독적 전통에 대해 다루면서 조선시대 남아 있던 한문 훈독적 전통에 대해 살피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읽기의 방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훈독을 명백히 일본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부속국문화자를 통해 쓰인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을 한문 훈독의 경향을 일본으로부터 역수입한 사례로 들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한문의 읽기 관습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24) 이병근(2000), 「俞吉濬의 어문사용과 『西遊見聞』」, 『진단학보』 89, 진단학회, pp. 309-326.

25) 안병희(1976), p. 154.

어문적 관습이 일본보다 훨씬 중화문명권에 가까운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경향임을 부인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진작에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한문과 국문이 나아가 특정한 신분적 계층과 연관되어 이른바 비균질적인 리터러시(literacy)의 문제로까지 발전해온 조선 이래의 어문적 전통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없이, 일본에서 파생된 한문혼독이라는 다소 잠정적인 형태의 전통을 다름 아니라 조선의 어문환경의 변천 과정 속에서 거슬러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적 관점에 대해서는 다소간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관점을 경유하여, 다시 『만세보』에서 쓰인 부속 국문 표기와 돌아와 보게 되면, 몇 가지 관점들이 보다 분명하게 확정될 수 있다. 즉 『만세보』의 초기에 한자에 대해 음을 달아 한문을 모르는 계층에게 읽기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은 한자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각각 쌓아올린 다른 어문 환경의 차이에 대한 비교적 충분하지 못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즉 조선에서 한자에 대한 독음과 구결은 이미 한문의 읽기 방식 내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문을 알지 못하는 계층에게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이처럼 한자에 대한 주석음을 다는 표기가 효용성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하게도 당시 ‘국문독자구락부’나 이인직이 주도했던 것처럼 한자에 대한 주석음이 아닌 의미 중심의 주석뜻을 다는 대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한자 1자에 1음절이라는 전통적인 음성적 규정이 깨지면서 그 의미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바로 이처럼 도출된 대안의 방향성 속에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속 국문 표기가 한자 1자에 대응하는 의미의 묶음으로서의 국문 단어라는 관념을 강제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국문체였다면 단지 한자어로 된 단어만 빼고 분절 없이 써내려갈 수 있는 데 비해, 문장 중에 한자 1자에 속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의식하고 규정하여 대응시켜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만세보』 창

간호의 기사인 (C) 국문독자구락부에 존재하는 ‘^{엇지} ^일 혼事’이라는 구절을 예로 들어본다면, ‘^{엇지} ^일 혼事’와 ‘^{엇지} ^일 何事’ 사이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사의 저자와 부속 국문 표기를 다는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인직이 연재한 소설이나 언해된 경전 같이 기존의 국문체의 전통이 존재하는 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논설이나 사설 같은 글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이 불가능한 문체적 변개를 전제로 한 일이기도 했다. 어디까지나 혼독적 전통과 나름의 관습이 정착되어 참조적 규정이 존재했던 일본과는 전혀 사정이 달랐던 것이다. 관습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표기적 변이의 국면을 몇몇 소수의 어문적 실천을 통해 바꾸는 것은 당연히 무리일 것이다. 특히 주로 소설을 읽는 계층이 사용하여 발전시켜온 국문체라는 간명한 해결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일본식의 한문 혼독의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이른바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인직이 「혈의누」 이후 자연스럽게 순국문체로 나아간 것은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효율성을 따른 당연한 결정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한자와 그 독음이 1대1의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선시대 어문 정책의 암묵적인 전통이 깨져가는 과정이면서 이른바 국문체의 확립과정으로 이해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 모든 변화가 이 신문 하루의 지면에서 모두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흥미로운 것으로 만드는 한편, 또한 그 역사적인 변모의 양상을 충분히 짐작해낼 수 없도록 하는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기적 변천의 과정이 일본의 사례처럼 한문 혼독의 경향이 음성적 측면에 침투하여 새로운 읽기의 전통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웠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어문정책이 한자에 대응하는 독음을 주로 1음절로 일대일로 대응시켜 유지하는데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나 언해의 전통을 따라 한문을 번역하거나 독자적으로 존재가능한 순국문문장이

원래부터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한문훈독의 관습에서 비롯된 음성적 혼란은 존재하지 않았고 언문일치의 양상 역시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4. 낫선 개념의 현전으로서의 음성의 시각화와 계몽의 차원 — 『독립신문』의 국한문담론과 매개된 서구의 근대적 개념

한편, 『만세보』가 부속 국문 활자를 통해 한자를 읽어내는 음성을 시각화하여 아직 의미화 되지 않은 채 낫선 음성으로 존재했던 근대의 개념어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환기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강조한 주지의 일이나, 이 문제는 이미 10년 전에 독립협회의 주역들이었던 서재필과 주시경이 『독립신문』의 지면을 통하여 제기했던 국문과 한문의 문제와 일련의 전후 맥락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한문과 국문(한글)을 서로 번역적 관계에 놓인 서로 다른 언어로 인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양자간의 의미적 등가교환이라는 관념의 형성이라고 본다면, 바로 『만세보』가 보여준 부속 국문 표기는 낱낱의 한자에 소리(음읽기)를 달아야 할 것인가, 의미(뜻읽기)를 달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문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효과를 낳아, 10여 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독립신문』의 국문전용론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했던 한자폐지, 국문전용의 이념에 대한 가시적 성취를 보여준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이미 10년 전에 제기하였던 『독립신문』의 사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립신문』 1897년 8월 5일자 지면에는 국문과 한문에 대한 논설이 하나 실린다. 이 논설의 요점

은 다름 아니라 한자로 된 근대적인 개념어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당시 국문 전용을 주의로 채택하고 있었던 이 신문에서 한자로 된 개념어에 한자를 병기할 것인가 아니면 음차된 한자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국문으로 책을 번역 하거든면 두가지 일을 데일 본져 하여야
 홀터이라 첫지는 국문으로 옥편을 문드러 글주 쓰는 법을 정히 늦
 코 그뒤로 그르쳐 아즈와 비즈를 합 하거든면 아비라 하느디 뜻인
 즉 임이의 남편이요 부모 중에 사나히라 그럿게 주를 내여 전국 인
 민을 그르쳐 늦커드면 아비 두 즈면 사름마다 무슴 말인지를 알터
 이요 말노 하여도 아비요 책을 보아도 아비라 누가 모를 사름이 잇
 시리요 그러치미는 한문으로 하거든면 아버지를 써 늦커드면 한문 하
는 사름은 보고 아버지를 알거니와 한문 못 하는 사름은 모를터이
요 쏘 넓히여 들니드리도 부라 하니 부를 아비로 알 사름이 몇이 잇
시리요 (중략) 한문하는 사름들이 말 하되 한문 글주로 쓰지 아니 하
면 조선 말에 모를 말이 만히 잇다 하니 그것은 다문 한문 공부문
하고 국문 공부는 아니한 사름의 말이라 설령 독립 신문이라 하면
독립도 한문 글주요 신문도 한문 글주로 쓰나 그것은 국문을 공부
아니 하였기에 홀노독 설립 새신 드를문즈문 생각 하고 독립이른
말은 남의게 의지 아니 하였을 독립이라 하는것으로는 비호지 아니
한탓이라 만일 조선 인민을 그르치되 독립이른 말은 남의게 의지
아니 하는것으로 그르쳐 노홀것 그하면 독립문 보고도 그 뜻을 알
터이요 홀노독 설립을 비호지 아니한 사름도 뜻을 책을 보고도 알
터이요 누가 말 하는걸 듯고도 알터이라 조선에 한문 글주로 된 말
이 만히 잇시나 그것을 한문을 주를 내여 그르치지 말고 국문으로
주를 내여 그르쳐 노홀것 그하면 뜻도 더 쇼상히 알터이요 비호지
도 더 쉽고 말과 글이 그하질터이요 한문 생각은 당초에 하지도 아
니 할터이라²⁶⁾

26) 「본설」, 『독립신문』 92호, 1897.8.5., 1-2면, 밑줄 인용자.

아마도 서재필일 것으로 생각되는 논설의 저자는, 예를 들어 ‘아비’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아비의 뜻을 사전을 통해 ‘임이의 남편이요 부모중에 사나히’와 같은 식으로 주를 내어 전국의 인민에게 계몽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한자로 ‘父’라고 써놓으면 한문을 읽고 쓰는 계층은 이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계층은 이를 바로 알 수 없으며, 이를 ‘부’라고 읽더라도 이 단어의 의미가 ‘아비’인지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이 논설은 바로 한자어에 대한 음성적 독음이라는 것이 의미의 파악에는 그리 큰 기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앞서 『만세보』의 기사 중 (A)의 사례로서 당시 한문 구조에서 낱글자에 대한 독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해석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는 모종의 합의가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조선시대 이래로 내려온 한자의 형상과 그것을 읽어내는 음과 현실 언어 생활에서의 의미 사이의 불일치, 즉 언문일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父’와 ‘부’의 관계 같은 단일 글자의 일대일 음성적 대응에서 벗어나 ‘獨立’과 ‘독립’ 같은 근대적 개념어의 음성적 재현의 차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설의 저자는 ‘父 : 부 : 아비’ 라는, 즉 한자의 형상 : 한자의 소리 : 한자의 의미(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국문대응어)라는 3항 관계가 가능한 한자어에 비해, 근대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獨立 : 독립 : ?’의 경우에는 3항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굳이 간과하고 있다. ‘아비’는 당시 인민의 언어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쓰이고 있는 국문 단어이지만, ‘독립’은 마땅한 국문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낯선 한자 개념어 그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논자는 이 차이를 언어에 대한 교육과 매체를 통한 담론적 보충으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獨立’처럼 직접 한자를 드러내어 그 낱낱의 한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전체 개념어의 의미를 알아내기보다는 ‘독립’이라고 쓰되, 이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교육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문 중심의 교육의 필요는 낯선 근대적 개념어들을 인민의 실질적인 언어생활 속으로 끌어들이 그 속에 위치하도록 한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

글자들을 모아 옥편을 씌일 새에 門 문이라 흘것 ㄹ하면 도모지 한문을 못빅은 사름이 한문으로 문문 즈는 몰으나 문이라 ㅎ는것슨 열면 사름들이 드나들고 닷치면 사름들이 드나들지 못 ㅎ는것인줄 노는 다아니 문이라 ㅎ는것은 한문 글즈의 음일지라도 곳 조선 말이니 문이라고 쓰는것이 ㅄ당 흘것이요 ㅄ 飲食 음식이라 흘 것 ㄹ하면 마실음 밥식즈인줄을 몰오는 사름이라도 사름들의 입으로 먹는 물건들을 음식이라 ㅎ는 줄노는 다 아니 이런 말도 ㅄ흔 ㅄ당이 쓸것이요 山 산이라 ㅎ던지 江 강이라 흘것 ㄹ하면 이런 말들은 다 한문 글즈의 음이나 ㅄ흔 조선 말이니 이런 말들은 다 쓰는것이 무방흘썌더러 ㅄ당 ㅎ려니와 만일 한문을 몰오는 사름들이 한문의 음으로 써서 노은 글즈의 뜻을 몰을것 ㄹ하면 단지 한문을 몰오는 사름들문 아지 못 흘썌이 아니라 한문을 아는 사름일지라도 한문의 음문 ㅄ히 ㅎ야 써서 노은 고로 ㅎ이 열즈면은 일곱이나 여덟은 몰으나니 차아리 한문 글즈로나 쓸것 ㄹ하면 한문을 아는 사름들이나 시원이 뜻을 알것이라 그러나 한문을 몰오는 사름에게는 엇지 ㅎ리요 이런즉 불가불 한문 글즈의 음이 조선말이 되지 아니 ㅎ것은 쓰지 말아야 올을 것이요²⁷⁾

앞선 서재필의 논설이 게재된 한 달 뒤, 주시경은 『독립신문』에 편지를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그는 여기에서 ‘문’이나 ‘음식’ 혹은 ‘산’, ‘강’ 같은 한자어의 독음이나 이미 국문의 단어화한 것들은 한자 병기 없이 그대로 써도 좋을 것이라고 하나, 한문을 모르는

27) 「주상호의 국문론」, 『독립신문』 114-115호, 1897.9.25~28, 밑줄 인용자.

사람이 한문의 음으로 써놓은 글자의 뜻을 모를 만한 경우에는 차라리 한문을 아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게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켜 써야 하며, 한자의 음을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주로 일본에서 번역된 서구의 근대적 개념어들이 문제시될 것인데, 서재필은 그러한 번역된 개념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그 의미를 교육하면 충분히 그 의미를 계몽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견해인데 반해, 주시경은 ‘독립’이나 ‘사회’ 같은 근대적 개념어들은 한글을 통해 한자어의 음을 표현해봤자 큰 효과가 없으므로 차라리 ‘獨立’이나 ‘社會’처럼 한자를 노출하여 써야 한다는 실용적인 견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문명을 경유하여 번역된 낱선 언어들 이 일종의 카세트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것이되,²⁸⁾ 이 두 논자는 그러한 낱선 언어들 이 일으키는 효과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낱선 단어들이 당시 한국 인민들의 언어 생활 속에 얼마나 의미적으로 정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 번역된 개념들이 주로 한자어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같은 한자문명권에 속해 있는 한국에서 그 한자어들이 스스로 시각적으로 의미를 비슷하게나마 재현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어들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상태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독립신문』에서 이루어진 한자어에 대한 음독이 갖는 문제라

28) 柳父章(2003), 서혜영 옮김, 『번역어성립사정』, 일빛, p. 4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네모난 문자’(한자 ‘個人’를 가리킴-인용자)의 의미가 원어의 individual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말을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보아도 individual의 의미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이러한 새로운 문자의 건너편에 individual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약속이 놓여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번역어가 멋대로 한 약속이므로, 다수의 독자들에게는 역시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려워 보이는 한자에는 잘은 모르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독자층에서도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 일본어에서 한자가 지니는 이러한 효과를 나는 ‘카세트 효과’라고 부른다. 카세트(cassette)란 작은 보석함을 이르는 말로, 내용물이 뭔지는 몰라도 사람을 때혹시키고 애태우게 하는 물건이다. ‘사회’와 ‘개인’은 예전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 ‘카세트 효과’를 갖는 말이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든가 근대적인 개념어를 어떻게 표기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게 되면, 이 문제가 이후 『만세보』나 이인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썩 포괄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²⁹⁾ 즉 낮은 소리로 올리고 있으면서도 현전되지 않는 서구의 근대적 개념어들은 그것의 번역어로서 적절한 순국문 어휘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단지 번역된 그 한자어의 음으로 지칭할 수밖에 없으며, 올리고 있는 낮은 음성적 현전이 근대적 개념과 담론을 이끌어 계몽을 추동하는 양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만세보』에서 부속 국문 표기를 통해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던 낮은 개념의 현전으로서의 음성의 시각화는 바로 이전 시대부터 내려오던 근대적 개념을 둘러싼 계몽의 문제를 다시금 환기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5. 결론

문자언어인 한자를 어떻게 읽어내고 이를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음성화하여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선 시대 이래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는 단지 어문 전통적 국면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중화의 문명권이라는 지정학적 문제가 긴밀하게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어 한층 복잡한 문제적 국면을 갖는다. 특히 개화기라는 문명적 교체기에 있어서 한자에 대한 과거의 음성적 표준이 새롭게 재구축

29) 황호덕(2007), 「한문맥(漢文脈)의 근대와 순수언어의 꿈」,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학회, pp. 113-118. 황호덕은 「혈의누」의 한 대목을 들면서 이인직이 한자를 독음 중심으로 읽어내고 있는 과도기적 통합의 양상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것이 일본어의 유입을 용이하게 한다고 본다. 즉 「혈의누」에 드러나는 문명어들은 그러한 번역적 재현의 은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결코 온당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결코 이인직에게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착종의 양상은 지나간 어문적 전통의 잔영과 새로운 어문적 전통의 수립이 겹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증례일 것이며, 단선적인 어문 전통의 변천 과정을 보다 다층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사례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착종을 드러내는 사례로서 1906년에 창간된 『만세보』가 채택했던 부속 국문 표기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표기가 환기한 당대 어문 환경 상의 문제들이 어떠한 국면을 이루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 신문의 부속 국문 표기는 물론 일본의 루비 표기를 의식하는 국면에서 도입된 것이 사실이나 이는 한자를 읽어내는 음성을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같은 한자 문명권에 속해 있었던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가지고 각각 발전시켜온 어문적 전통의 차이가 심대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매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양국의 어문적 전통의 상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나 뜻을 새기는 언해라는 번역의 과정으로 대치될 수 있었던 일본적 개념의 한문훈독의 전통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일종의 허상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인직의 언어실험이 결국 국문체로 나아가기 위한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당시 『만세보』가 시각화한 한자의 음성적 국면이 바로 이전 시대 『독립신문』이 국문 전용으로 한자를 읽어내는 개념에 대해 고민했던 양상을 재현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독립신문』, 『萬歲報』, 『대한매일신보』 외 개화기 신문 자료.
『월인석보(月印釋譜)』(1459), 『능엄경언해(楞嚴經)』(1461), 『역어유해(譯語類解)』
(1690), 『삼운성휘(三韻聲彙)』(1751), 『국한회어(月印釋譜)』(1895) 외 다수.

【논 저】

- 권영민(2006), 『국문 글쓰기의 재탄생』, 서울대 한국학 모노그래프 11, 서울대 학교 출판부.
- 김영민(2009), 「근대계몽기 문체 연구:유길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 391-428.
- _____ (2008), 「《만세보》와 부속국문체 연구」, 『大東文化研究』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415-453.
- 三枝壽勝(2000), 「이중표기와 근대적 문체 형성-이인직 신문 연재 「혈의 누」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15, 한국문학연구학회, pp. 41-72.
- 송민호(2011), 「개화계몽기 문자/음성적 전통의 균열과 이인직의 언어의식」, 『한국문학연구』 4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pp. 81-111.
- 송철의(2005),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한국학공동연구총서 7,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37-75.
- 안병희(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 41, 진단학회, pp. 153-156.
- 이병근(2000), 「俞吉濬의 어문사용과 『西遊見聞』」, 『진단학보』 89, 진단학회, pp. 309-326.
- 이연숙(2006),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인식』, 소명출판.
- _____ (2005), 「일본에서의 언문일치」, 『역사비평』 70, 역사문제연구소, pp. 323-345.
- 전은경(2011), 「근대 계몽기의 신문 매체와 ‘독자’ 개념의 근대성-번역어 “독

자”의 성립 과정과 의사소통의 장], 『현대문학이론연구』 46, 현대문학이론학회, pp. 175-200.

최기영(1988), 「구한말 『만세보』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61·62, 한국사연구회, pp. 301-342.

최태원(2000), 「『血의淚』의 문체와 담론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호덕(2007), 「한문맥(漢文脈)의 근대와 순수언어의 꿈-한국 근대 개념어 연구의 과제」,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pp. 113-118.

柄谷行人(1997),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丸山眞男·加藤周一(2000),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柳父章(2003), 서혜영 옮김, 『번역어 성립 사정』, 일빛.

齋藤希史(2010), 황호덕, 임상석, 류충희 옮김,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 한문맥과 근대 일본』, 현실문화연구.

小森陽一(2003), 정선태 옮김, 『일본어의 근대-근대국민국가와 ‘국어’의 발견』, 소명출판.

원고 접수일: 2015년 12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월 27일

ABSTRACT

The Visualization of Voices
and the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with Chinese Characters in the Newspaper *Manse-bo*

Song, Minho*

This study examines the attached Korean transcription style adopted by the newspaper *Manse-bo*, which was published in 1906. At that time, Son Byong-hi (孫秉熙, 1861-1922), a religious sect leader of Cheondogyo annotated Hangul (Korean alphabet) beside Chinese characters when he founded the newspaper, and brought in a type called 'Ruby' in Japan. The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used in combination showed through visualization the relationship of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as they co-existed in the language environment of Korea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in Korea, the vocal tradition that reads Chinese characters and the translation tradition that inscribes the meaning are thoroughly separated. Although each Chinese character had a correct annotation through this orthography, people who did not know Chinese characters could not have any chance to understand their meaning. Therefore, the newspaper *Manse-bo* at the time mostly used a method that annotated voice on modern concep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ongik University

words borrowed from the west. It also attempted an experiment in language through columns such as Gungmundokjagurakbu (國文讀者俱樂部), in which Chinese characters were matched to Hangul not through annotation voice, but by matching the meaning of annotation focusing on the words expressing action or descrip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language marking experiment was part of a transitional process which resulted, in the end, in a complete Korean style, and not a reconstitution that was influenced by the Japanese way of reading Chinese classics. The phonetic and descriptive (or analytic) tradition established from the Joseon period had made an impact.

In addition, the way of writing adopted in the newspaper *Manse-bo* brings to mi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haracters and Korean letters that was brought up by the driving forces of *Dongnipsinmun* (『독립신문』) in the previous period. At the time, Seo Jae-pil (徐載弼, 1864-1951) and Ju Si-gyeong (周時經, 1876-1914) had expressed their opinions about the matter of transliterating from Chinese. The major focus of this discussion was how far it would be possible to transliterate from Chinese letters. Seo Jae-pil and Ju Si-gyeong both considered how deeply the concept of transliterated Chinese was imbedded within the everyday language of the people. In conjunction with this, they emphasized the need for enlightenment of modern western ideas. The attached Korean transcription style introduced by *Manse-bo* contributed to provoking, once again, attention on the discourse o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matter of enlightenment, which had been brought forth in this period. Furthermore, it recalled the conditions that eventually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lete Korean style, since the tradition of reading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had not existed in Korea.